

本草書의 系統과 本草學 發展史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The Lineage of Herbal Medicine Books and the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Studies.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paper proposes to examine how herbal medicine studies developed amidst the historical changes, by studying the publications of herbal medicine books. For this reason, centering on the most eminent herbal medicine books of each period, the characteristic of the times shown by their publ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were summarized. Also, traces of herbal medicine books among the eminent classics that were imported into our medicine and made a deep impact, and whether or not a Chosun edition was published were researched and introduced in order to show the influence it had on Korean Medical History.

Key words : medicinal plants in korean medicine[boncho], [hangyak], medical history, pharmacopoeia

1. 들어가는 글

‘本草’라는 용어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 혹은 약재를 의미하게 된 것은 온갖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약재 가운데 식물성 약재인 약초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本草라고 말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물로 사용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된다. 本草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발전을 거듭한 한의학의 한 학문 분과이다.

일찍이 許浚(1539~1615)은 『東醫寶鑑』의 集例에서 “옛 사람들이 의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먼저 본초서를 읽어서 藥性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본초가 너무 많아 번잡하고 여러 의가들의 의견이 제각기 달라 요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약재가 절반이다.”¹⁾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 학문이 얼마나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分科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자 본초학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역대 本草書의 刊行을 통해 本草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로 가장 특징적인 본초서를 위주로 대표적인 본초 명저의 간행과 이것이 의미하는 시대적 특징과 본초학적 발전상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대표 명저 중 우리 의학에 도입되어 깊은 영향을 끼친 본초서의 흔적과 조선판의 간행 사항을 조사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한의학에 미친 영향성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은 간접적이거나 이들 책들이 지니는 전통의 학에서의 위치와 가치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주제로 먼저 醫藥의 기원과 약물지식의 축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본초학 최고의 경전인 『神農本草經』을 필두로 역대 제가 본초서의 계통성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인류는 원시시대를 거쳐 점차 인지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약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이를 치료에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약물지식은 처음에는 구전을 통해 전수되었지만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더욱 그 응용범위가 넓어져서 약물의 채취시기, 산지, 모양 및 쓰임 등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약물지식의 축적을 상징하는 초창기의 성인으로서 神農이라는 인물은 本草學 지식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淮南子·修務訓』에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옛날에 백성들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나무에 매달린 과실을 따먹었고, 소라나 조개의 살코기를 먹어서 질병이나 중독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神農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五穀의 播種法을 가르치고 …… 百草의 맛과 썩물의 맛을 보아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니, 이때에 하루에도 70여개 약물의 맛을 보았다.”²⁾ 여기에서 神農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약물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선사시대에 속하는 어느 기간의 어느 씨족 가운데 약물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지닌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복합약물인 방제에 대한 기록도 약물의 발전에 의의가 있다. 周나라 시대 재상인 伊尹이 『湯液經』을 지었는데, 이에 대해 皇甫謐의 『鍼灸甲乙經序』에서는 “伊尹이 聖人에 버금가는 재주를 가지고 『神農本草經』을 이용해서 『湯液經』을 지었다. …… 張仲景이 伊尹의 『湯液經』을 넓혀서 수십 권을 만들었는데, 사용하여 보니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³⁾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周代에 處方을 응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欲學醫，先讀本草，以知藥性。但本草浩繁，諸家議論不一，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

2) 古者民茹草飲水，采樹木之實，食羸虵之肉，時多疾病毒傷之害，於是神農乃始教民播種五穀，……嘗百草之滋味，水泉之甘苦，令民知所辟就，當此之時，一日而遇七十毒。

『탕액경』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의 歷代醫方에도 등장하는데, ‘湯液本草’⁴⁾라고 하여 본초학의 기본 경전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周禮·天官』에는 “五味, 五穀, 五藥으로써 환자를 調養한다(以五味, 五穀, 五藥, 養其病)”는 기록이 있고, “무릇 중기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 五藥으로써 다스리고,五味로써 調節한다.”⁵⁾는 기록이 있는데, 漢代 鄭玄이 注를 달기를, “五藥은 풀, 나무, 곤충, 돌가루, 곡식 다섯 가지를 말한다.”고 하였으니, 약물을 분류하는 초보적인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詩經』도 주목해 볼 만하다. 『시경』은 西周時代에 지어진 책으로 약물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 가운데에는 商代의 동식물에 관련된 기록이 매우 많은데 그중 약물과 관련된 기록만 해도 대략 50여종에 달한다. 어떤 약물에 대해서는 산지와 식용효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⁶⁾ 『山海經』도 약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산해경』에는 동물성 약물 63종, 식물성 약물 52종, 광물성 약물 4종, 미상 2종 등 모두 121종에 달하는 약물이 실려 있다.

약물지식에 대한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어떤 약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였으며, 심지어는 약물의 유독성분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약물의 취사선택, 채집, 약물을 저장하는 시기, 약물의 효능 등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다.

이제 본문에서는 역대 주요 본초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 본초학의 특성과 의의, 그리고 한국의학에 미친 영향과 한국문헌 속에서의 가치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2. 『神農本草經』의 刊行과 本草學의 성립

원시시대로부터 축적된 本草學 지식은 秦漢時期에 이르면 크게 정리되게 된다. 특히, 이 시기는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犀角, 羚羊角, 琥珀, 麝香과 大蒜, 胡桃, 龍眼肉, 荔枝 등이 들어와 醫家들의 처방에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남방에서 약재들이 계속 수입되어 약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졌다.

西漢 초년에는 이미 本草學 지식이 민간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漢書·平帝紀』에는 일찍이 元始 5년(서기 5년)에 天文, 曆算, 方術, 本草 등을 가르친 사람들이 京師에 왔다는 기록이 있다. 東漢時代에는 약물에 정통한 의사들과 전문적으로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馬王堆에서 출토된 의서들⁷⁾ 중에는 비록 본초를 전문적으로

3) 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以爲湯液. …… 仲景論廣伊尹湯液爲數十卷, 用之多驗.

4) 殷時伊尹所作也.(『東醫寶鑑』 原註)

5) 凡療瘍, …… 以五藥療之, 以五味節之.

6) 『詩經』에 등장하는 본초에 대해서는 潘富俊, 『詩經植物圖鑑』,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이 참고하기 좋다.

7) 예컨대 『五十二病方』, 『治百病方』 등과 같은 책들.

다른 저작이 없지만 그 가운데 사용된 약물은 243종에 달한다. 이것은 西漢 이전에 이미 본초학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런 바탕 위에 『신농본초경』이 탄생하여 후세 본초학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神農本草經』은 東漢 이전에 형성된 풍부한 본초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탄생된 것으로, 현존하는 본초학 서적들 가운데 그 연대가 가장 빠르다. 이 책은 대략 서기 1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한 사람의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많은 의가들의 정리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명에 ‘神農’이란 두 글자가 있는 것은 『內經』에서 ‘黃帝’라는 이름을 가탁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바로 『淮南子·修務訓』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것을 천하게 여기므로 도를 행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농이나 황제를 가탁한 후에 자신의 학설을 개진할 수 있었다”라고 한 바와 같다. 이 책은 5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원서는 失傳되었지만 그 주요내용은 역대 본초저작물에 남아 있다. 현재 통용되는 판본은 明清 이후 흠어진 것을 수집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신농본초경』에는 365종의 약물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植物이 252종, 動物이 67종, 鑛物이 46종이다. 이 책은 약물의 藥性和 효능의 차이에 따라 上, 中, 下의 3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上品 120종은 일반적으로 독성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補養類에 많이 속하는 약물들이다. 中品 120종은 어떤 것은 독이 있고 어떤 것은 독이 없으며 補養과 함께 질병을 政治하는 작용을 겸하는 약물들이 많다. 下品 125종은 대다수가 독성이 있어 전적으로 질병을 政治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들이다. 이것은 약물을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 책에서는 君, 臣, 佐, 使와 七情, 四氣, 五味 등의 藥物理論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각종 약물의 이름, 별명, 산지, 효능, 채취시기, 포제 및 저장방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病證의 명칭은 대략 170여종에 달하며, 약효에 대한 기록은 대다수가 매우 정확하다.

이 책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檀君神話에 등장하는 쑥[艾]과 마늘[蒜]은 채록되어 있지 않으며, 百濟新集方이나 新羅法師方에 등장하는 약물의 효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중국과 삼국 중심의 향약본초와는 용법이 서로 다르고 계통성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고려 高宗대에 崔宗峻이 펴낸 『御醫撮要方』(1226)의 서문은 李奎報가 쓴 것으로 그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 권21에 전한다. 이 서문에는 주요 참고서로 千金(방), 斗門(방), 聖惠(방)에 앞서 ‘本草’가 등장한다.⁸⁾ 이 古本草가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농본초경』과 같은 삼국시대로부터 전래된 고본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을 조선에서 간행한 기록은 없으나 太宗 12년 忠州史庫에서 여러 가지 의서와 함께 『神農本草圖』를 꺼내어 바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신농본초경』의 圖經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⁹⁾ 또 『동의보감』·역대의방에도 “本草, 神農氏所作也.”라고 하여 일찍부터 본초학의 聖典으로 여겨왔음

⁸⁾ 是古聖賢所以著 本草, 千金, 斗門, 聖惠諸方, 以營救萬生之命者也.

⁹⁾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84.

을 잘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동의보감』·역대의방에는 『採藥對』, 『採藥別錄』,¹⁰⁾ 『藥性炮炙』¹¹⁾와 같은 고대 본초서가 첫 머리에 올라 있다. 雷斅의 『炮炙論』은 일찍이 散逸되었으나 『동의보감』에는 ‘雷公’이란 약칭으로 3조가 인용되어 있다. 또 역대의방에는 雷斅가 지었다는 『至教論』이 함께 들어있으나 이 역시 일찍이 散逸되어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조선 말엽 黃度淵의 『醫宗損益』에 이르기까지도 『神農本草』가 가장 먼저 거명되어 있어 이 책을 약물학의 原典으로 여기며,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3. 『本草經集註』의 刊行과 本草學의 정리

『神農本草經』이 나온 후에 약물로 사용하는 藥材의 숫자는 계속 증가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었다. 漢, 魏 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본초저작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南北朝 시대에 이르러서 陶弘景(452~536)이 『本草經集註』를 짓는데, 이것은 본초학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신농본초경』에 실려 있는 365종의 본초 약물을 정리하고 여기에 새롭게 발견된 365종의 약물을 보충한 것으로 모두 730종의 약물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새롭게 보충하여 넣은 부분을 『名醫別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기존에 上品, 中品, 下品の 세 가지로 약물을 분류하던 방법을 바꾸어 玉石, 草木, 蟲獸, 果, 菜, 米食, 有名未用 등의 7종으로 분류하였다. 약물의 性味, 產地, 採集, 形態와 鑑別 등에 대해서도 발전된 내용이 담겨 있고, 특별히 藥性도 더욱 세분되어 寒, 微寒, 大寒, 平, 溫, 微溫, 大溫, 大熱 등의 8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80여 종의 질병에 통용되는 약물을 분류, 나열하고 있다. 治風의 통용약물로 防風, 防己, 秦艽, 芎藭 등을 나열하고 있고, 黃疸의 통용약물로 茵陳, 梔子, 紫草 등을 나열하여 임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本草經集註』의 원본은 이미 실전되어 현존하는 것으로 敦煌殘卷本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후에 나온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에 인용되어 전해오고 있다. 陶弘景의 『명의별록』과 『본초경집주』는 이미 삼국시대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吳人 知聰이 고구려 平原王때 內外典, 藥書, 明堂 등 164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록을 미루어 보아 그가 지녔다는 ‘藥書’ 중에 陶弘景의 『본초경집주』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

조선에서 『本草經集註』를 간행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나,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본초서를 통해 傳習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1955년도에 발행한 東洋醫藥 1권2호 申佶求의 藥物學講義(2講)에서 『神農本草經集註』라는

10) 以上 桐君所著, 黃帝臣也.(『東醫寶鑑』 原註) 隋書·經籍志에 ‘『桐君藥錄』3卷 佚.’이라 하였고 “陶弘景曰, 桐君採藥錄, 說其花葉形色.”이라고 하였다.

11) 以上 雷斅所著, 黃帝臣也.(『東醫寶鑑』 原註)

1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61, 67.

이름으로 두 번 등장한다.

4. 최초의 관찬 본초서 『新修本草』와 本草書의 속간

唐나라에 이르면 『新修本草』라는 최초의 국가에서 반포한 본초서적이 간행된다. 『신수본초』는 657년 당나라의 조정에서 蘇敬 등 20여명의 醫官들에게 시켜서 659년 완성되었다. 모두 54권으로 되어 있는데, 本草 20권, 藥圖 25권, 圖經 7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2권의 목록이 있다. 이 책에는 850여 종의 약물이 실려 있는데, 전국에 슈을 내려 각 지역의 약재들을 수집하여 표본으로 삼아 그 형태를 그려 놓고 있고, 산지, 형태, 성미, 효능, 주치, 채집, 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본초서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들을 보충하는 한편 잘못된 내용들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신수본초』는 반포된 후 빠른 속도로 전국에 보급되어 10세기 중엽에 宋나라 때 『開寶本草』가 나와 이를 대치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신수본초』가 나온 후 6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어 새로운 본초저작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唐나라 때 陳藏器가 지은 『本草拾遺』는 陳藏器가 陶弘景, 蘇敬 등의 저작 속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738년에 펴낸 것이다. 『本草綱目』에서는 이 책에 대해 “널리 못 서적들을 다 갖추어서 정밀하게 약물들을 부류에 따라 정리하여 그 잘못된 점을 정리하여 묶고 숨어 있는 사실들을 찾아서 나열해 놓았다(博極群書, 精核物類, 訂繩誤繆, 搜羅幽隱)”라고 평가하고 있다. 원본은 失傳되었지만 『證類本草』에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食療本草』는 唐나라의 孟詵이 펴낸 것이다. 이 저작은 식용과 치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다. 원본은 失傳되었지만 『證類本草』, 『醫心方』 등에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밖에 『食性本草』는 934년 陳士良에 의해 만들어졌다. 『食療本草』와 『食性本草』는 모두 식이요법의 발전에 공헌한 저작으로 볼 수 있다. 『海藥本草』는 唐나라의 李晌이 펴낸 것이다. 주로 남해지역의 약물에 대해 그 산지와 效能, 主治를 기록하였다. 원본은 失傳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후세 본초저작에 전해지고 있다. 『四聲本草』는 唐의 肖炳이 펴낸 것이다. 이 저작에서는 약물의 이름 위에 四聲을 표시하여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원서는 이미 실전되었지만 일부 내용이 『證類本草』 등에 실려 있다. 『藥對』 2권은 北齊의 徐之才가 펴낸 것이다.¹³⁾ 이 저작은 『雷公藥對』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약물의 ‘君臣佐使’, ‘畏惡宜忌’ 및 主治와 분류에 중점을 두어 기록함으로써 약물의 쓰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다.

이상의 각 저작들은 다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역대 본초저작들 속에 보이는 약점을 바로잡고 있다. 또한, 食餌療法, 用藥法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고 각지의 약물들을 수집하여 설명하고 있고 藥物理論을 자세히 논하기도 하였다.

¹³⁾ 後周徐之才所著(『東醫寶鑑』 原註)

『三國史記』·職官誌에는 신라 孝昭王 元年(692년)에 醫學을 설치하고 博士 2인으로 하여금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때의 本草經이 어떤 책이었는데는 상세하지 않으나 김두중은 통일신라 시기 唐制를 모방하여 醫學제도를 시행했다는 전제 아래 陶弘景의 『本草經集註』 보다는 唐 高宗의 칙령으로 편찬한 『新修本草』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그 증거로 위의 기록이 이미 『신수본초』가 나온 지 36년이 지난 시점이며, 완성 후 72년 후인 751년에 일본에서 작성된 寫本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들었다.¹⁴⁾

현재 이 『신수본초』는 殘卷의 影刻本, 影印本만이 남아 있고, 그 내용은 후대의 본초서 및 方書에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현전 『新修本草』의 사본은 최근 중국에서 새로 펴낸 복원본 안에서 일부 원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¹⁵⁾

『태종실록』의 기록에는 忠州史庫에서 저자 미상의 『陳郎中藥名詩』와 後蜀 사람 張文懿가 지은 『本草括要』(907-960년경)가 등장하지만 모두 실전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시기에 나온 본초서 중 『동의보감』·역대의방에는 唐나라 孟詵의 『食療本草』(‘食療’로 약칭, 佚)와 陳藏器的 『本草拾遺』(佚), 徐之才의 『藥對』(佚) 그리고 甄立言이 지은 『本草音義』(佚)가 있다. 또 李景華는 그의 저서 『廣濟秘笈』(1790)에서 孟詵의 『식료본초』에 대하여 ‘食療而下愈, 然後用藥’이라 하여 음식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용서목에는 『四聲本草』, 『備用本草』 등의 송대 본초서가 올라 있다.

5. 『證類本草』의 刊行과 宋代 本草지식의 정리

宋代는 인쇄술의 발전, 지식인 계층이 의학계에 대거 유입 등으로 인하여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본초학장려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초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본초서적은 크게 관찬 본초서적과 개인 본초서적으로 나뉜다.

먼저, 관찬 본초서적은 『開寶重定本草』(보통 『開寶本草』라고 약칭)로부터 시작된다. 973년 송나라 정부에서는 칙령을 내려 劉翰, 馬志, 翟煦, 張素, 王從蘊, 吳復珪, 王光祐, 陳昭遇, 安自良 등 9사람으로 하여금 『新修本草』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간행하게 하였다. 이들은 唐代에 국가에서 주도하여 蘇敬 등이 편찬한 『신수본초』와 후촉한에서 전해져오는 『蜀本草』를 토대로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陳藏器的 『本草拾遺』를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신수본초』에 수록된 844종의 약물 외에도 139종을 첨가하여 20권으로 된 『開寶新詳定本草』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974년에 이것을 다시 정리, 교정한 뒤 21권의 책을 간행하였다. 책명은 당시 연호를 붙여 『개보중정본초』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현재 전해져오는 『개보본초』이다. 이 책에는 모두 총 983종의 약물이 실려 있으며 약물의 분류방법 또한 자세하고 명확하였다.

14)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67.

15) 돈황석굴 잔본, 仁和寺本,

1057년 嘉祐 년간에는 정부 관리였던 掌禹錫, 林億, 張洞 등과 의관이었던 秦宗古, 朱有章 등이 『개보중정본초』를 토대로 이를 교정하고 약물을 추가하여 3년 뒤인 1061년에 『嘉祐補注神農本草經』(『嘉祐本草』라고 약칭)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모두 21권으로 『蜀本草』와 『日華子諸家本草』, 『藥性論』¹⁶⁾ 등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여러 의가들의 본초에 관련된 지식을 흡수하여 만든 것이다. 이 책의 약물의 종류는 총 1082개로 『開寶本草』보다 99종의 약물이 더 첨가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약 50여종의 약물관계서적을 인용하고 있어서, 본초학 관련 서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책은 망실되었고, 단지 『證類本草』와 그 이후의 본초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의의가 있는 서적으로 『圖經本草』가 있다. 본래 본초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圖經은 唐代에 『新修本草』를 지으면서 함께 만들었다. 그러나 약물의 품종이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圖經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송나라 정부에서는 1058년에 延向全이라는 사람을 시켜 전국 각지의 약물표본과 식물도형을 모으고, 아울러 약재의 개화, 결실, 채취 시기등도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였다. 이것을 蘇頌 등이 정리하여 1061년에 『圖經本草』 21권과 목록 1권을 완성하였다. 이 책에는 총 780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으며, 635종의 약물에 933폭의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이 책은 주로 약물의 기원과 감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양의 單方經驗例도 수록하고 있다. 明代 李時珍은 이 책을 고증이 매우 상세하다고 평하였다. 이 책은 현재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이 『증류본초』에 인용되어 있다.

송나라시대에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만든 본초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저술한 개인 저작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개인저작 본초서들은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日華子諸家本草』가 있다. 이 책은 宋나라 초기 開寶 연간에 저술되었으나 저자는 미상이며, 저작 년대도 분명하지 않다. 12권으로 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지금은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지만 그 내용은 『증류본초』와 『본초강목』 등의 책에 다수 인용되어 있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본초서이다.

『重廣補注神農本草圖經』은 1092년에 四川省 閬中사람인 陳承이 편찬한 것이다. 그는 장사량이라는 관직을 지내면서 궁중에 있는 方書를 검열하였다. 거기에서 『嘉祐本草』와 『圖經本草』를 바탕으로 고급의 여러 학설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 23권의 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책은 본초에 관한 설명에 그림을 바로 붙이는 선례를 남겼다. 지금도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만 『大觀本草』와 『본초강목』에 수록되어 있다.

『經史證類備急本草』(『증류본초』라고 약칭)는 唐愼微가 지은 것으로 대략 11세가 말의 저술이다. 모두 1558종의 약물을 기재하고 있으며 매 약물마다 도해를 붙여 찾아보기 쉽도록 편찬하였다. 이 책은 『嘉祐本草』와 『圖經本草』를 하나로 묶고, 여기에 불교서

16) 『醫林撮要』에 藥性論의 인용문이 보이나 같은 책인지 후대의 다른 책인지 알 수 없다.

적, 『道藏』 등에 나오는 약물학 지식을 첨가하고, 『本草拾遺』, 『食療本草』 등에 처음 나오는 약물들을 모두 보충하고, 민간에서 사용되는 經驗單方들을 널리 수집한 것이다. 약물의 효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과 고증이 상세하다. 여기에 각 약물설명마다 修治法을 첨가하여 이후에 약물의 조제법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약물의 歸經 理論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고증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3000여개의 단방의 치료경험과 1000여개의 처방에 관한 논술을 싣고 있어서 당시 풍부한 민간의료경험을 보존하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宋代의 본초학의 업적을 총괄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唐愼微 개인의 저술이지만 그 가치에 인정되어 국가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였다. 1108년에 芮省이 수정할 때 陳承의 別說을 추가하여 간행하였는데, 송나라 徽宗의 연호(大觀, 1107-1110년)를 붙여 『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라고 이름 하였다. 그 이후에는 1116년과 1159년에 다시 교정하고 보충하여 『政和經史證類備急本草』와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를 각각 간행하였다. 紹興 연간에 교정된 책에는 약물이 1746종으로 늘어났다. 이후에도 이 책은 여러 번 간행되었고, 그때마다 책이름도 조금씩 바뀌었다.

송나라시대에는 약물의 수집과 정리 뿐 아니라 본초의 性味와 작용의 이치를 연구하는데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本草衍義』는 이러한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본초서이다. 이 책은 寇宗奭이 1116년에 지은 것으로 총 20권으로 460종의 본초가 기재되어 있으며, 본초의 理致, 본초의 藥性, 본초의 鑑別과 臨床應用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의사가 임상을 할 때는 반드시 약물의 理致와 藥性에 따라 치료하며, 나이와 체질의 강약, 질병의 新久 등을 참작하여 치료한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경험에 各家의 학설을 종합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약재를 기르고 관찰하여 선인들의 학설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약효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약물의 氣味를 강조하여 본초학의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의 본초서로 龐安常의 『本草補遺』(佚)와 『日華子本草』 17(佚) 등이 들어 있다.

『동의보감』·역대의방에는 『備用本草經史證類』 18)라 약칭하였으며, 책 속에서 보통 ‘本草’라고 약칭한 것은 모두 이 책을 말한다. 『동의보감』 안에는 무려 3370조 가량의 본초가 인용되어 있어 가장 높은 인용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 『新纂辟瘟方』 등에도 ‘證類本草’가 인용되어 있다.

조선에서 간행한 본초서로는 寇宗奭의 『本草衍義』(衍義로 약칭)와 『經史證類大觀本草』,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畫)』가 있다. 조선의 『향약집성방』도 약물의 배열방법이나 서술내용에 있어서 주로 『經史證類大觀本草』를 따르고 있다.¹⁹⁾

17) 宋人所著不書姓名(『東醫寶鑑』 原註)

18) 宋唐愼微所著(『東醫寶鑑』 原註)

19)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6. 金元의학의 대두와 本草理論의 발전

金元代는 金元四大家의 등장으로 인하여 의학이 크게 융성한 시기로 이에 따라 본초학도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여 발전하였다. 金代의 張元素가 지은 『珍珠囊』 1권에는 113종의 본초에 대한 寒熱, 效能, 主治, 歸經, 禁忌와 君臣佐使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주요 병증에 쓰이는 본초와 氣味, 炮制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은 임상적으로 본초를 사용하는데 지침역할을 해주는 전문본초서이다. 그러나 원서는 이미 망실되어 없어졌고 후대 사람들이 운문형식으로 바꾸어 만든 『東垣珍珠囊』이라는 책이 있다. 1289년 王好古가 지은 『湯液本草』 3권은 238종의 본초를 수록하고 있으며 본초의 효능을 설명할 때 약물의 歸經에 의거하고 있다. 이 책은 본초의 氣味陰陽과 升降浮沈 등의 성미와 효능을 밝히는데 공헌을 하였다. 그 외의 본초서로는 吳瑞의 『日用本草』, 朱震亨의 『本草衍義補遺』, 王好古의 『療癰疽耳眼本草要鈔』 등의 책이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본초서로서 王好古가 지은 『湯液本草』²⁰⁾는 조선에서 간행되어 널리 쓰였으며, 『醫方類聚』 引用諸書²¹⁾에 들어있다. 또 『동의보감』에서도 ‘湯液’이란 출전으로 122조나 인용되어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醫門寶鑑』을 비롯하여 『醫宗損益』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두루 이용됨으로써 이 무렵 조선의 약물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도 元나라 吳瑞의 『日用本草』, 朱震亨의 『本草衍義補遺』, 또 李杲의 『東垣眞珠囊』, 『東垣處方用藥指掌珍珠囊』이 간행되어 사용되었다. 『일용본초』는 李景華의 『廣濟秘笈』(1790)에 인용서목으로 올라있으나 그 출전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또 명나라 초기에 나온 徐彥純의 『本草發揮』 3권도 조선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金元시대 의가들의 본초 약론을 분석하고 경험을 수록하였으나 朱丹溪의 제자인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아 이 시기 본초학의 성과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1955년 『동양의약』 1권3호에서 申佶求是 藥物學講義(3講)를 통해 다음과 같이 金元시대 본초학을 평가하였다.

“王好古의 『湯液本草』와 吳瑞의 『日用本草』(1328~1332년)와 胡仕可의 『本草歌括』(1280~1330년)과 朱震亨의 『本草衍義補遺』(1367년) 등이 있는데 그중 『本草歌括』은 약의 성능과 圖形과 재료를 作歌하여 童蒙初學者에 便利케 하고 『本草衍義補遺』는 寇宗奭의 학설을 확충한 것인데 增補한 약품이 200종에 近하고 發明한 것도 많다. 그러나 蘭草가 蘭花가되고 胡粉이 錫粉으로된 것은 역시 舊說에 拘泥되었고 諸藥을 억지로 行藥에 배정한 것도 건강부회에 불과하다. 이것이 金元의 藥物學이다.”²²⁾

20) 殷나라 때 伊尹이 지었다는 同名의 湯液本草와는 구별됨.

21) 『의방유취』에 들어있는 본초전문서는 ‘大全本草’와 ‘湯液本草’ 둘 뿐이다.

22) 필자 운문.

즉 이 시기의 본초학에서는 氣味와 炮制, 歸經 등 다양한 본초학설이 개발되었고 방제 구성이론이 정형화되었지만 아직 개별 약물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7. 『本草綱目』의 등장과 博物學 지식의 보급

明代에는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과 해외무역의 활성화에 힘입어 본초약물의 가짓수도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전대의 본초학의 발전의 기초위에 계통적인 정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본초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책들의 출간이 크게 늘어나 본초학의 연구가 크게 촉진되었다.

『本草綱目』은 아마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본초서일 것이다. 이 방대한 본초서의 저자 李時珍은 전국각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초들을 직접 관찰하고 수집하였고, 또한 여러 명의들과 학자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 산재해 있는 많은 처방들도 수집하여 20년간 연구한 끝에 1578년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본초강목』은 총 52권이며 실고 있는 본초의 숫자는 1892종이다. 이중에 기존에 알려진 것이 1518종이며 李時珍이 새로 추가한 것이 374종이며 附方이 모두 11096종이며 그림이 1000여 폭이나 된다.

이 책은 『經史證類備用本草』를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 본초에 대해 성미, 산지, 형태, 채취방법, 수취법, 약성이론, 방제배합 등 모든 부분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본초강목』의 목차는 우선 ‘綱’을 두고 그 아래 ‘目’을 두어 세분해나가는 방식인데, 예로 ‘竹’이 강이며 竹葉, 竹筴, 竹瀝, 竹茹 등이 눈에 해당한다. 또 ‘桑’이 강이며 그 아래 桑枝, 桑白皮, 桑椹, 桑寄生, 桑花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을 제시하고 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어 조리가 분명하다. 附方은 관련된 본초설명 뒤에 붙여 각 본초가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水, 火, 土, 金石, 草, 穀, 菜, 果, 木, 服器, 虫, 鱗, 介, 畜, 禽, 人 등의 총 16개의 부분으로 나누었고 각 부분은 다시 몇 개의 類로 다시 분류하였다. 예로 木部에는 香木, 喬木, 灌木 등 6개의 류로, 草部는 山草, 芳草, 濕草 등 11개의 류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총 62개의 류가 있는데 이러한 정밀하게 세분된 본초분류방식은 기존의 분류방식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이다.

본초의 효능에 대한 설명도 內服과 外治의 두 분야로 나누어져있다. 內服은 發汗, 瀉下, 和解, 探吐, 溫補, 消導, 行氣, 化血, 祛痰, 鎮咳, 安神, 鎮驚, 利尿, 行水 등이며 外治는 吹鼻, 熏鼻, 擦牙, 吐痰, 貼囁, 外敷, 辟穢, 洗滌, 敷貼, 熨熏, 熏洗, 傅撲, 塗點, 熏灸 등이 있어 후세사람들이 본초의 효능을 연구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본초강목』은 16세기 이전의 본초학에 대한 새로운 성과를 종합했다는 점 외에 이전의 본초서에 잘 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예로 金丹을 복식하면 長生不老할 수 있다든지 또는 黃連, 雄黃, 芫花를 복용하면 神仙不老한다는지 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한 것 등이다. 또한 本

草를 감별하고 효능을 연구하여 임상적인 실용성을 부각시킨 점인데, 예를 들어 大楓子가 麻風을 치료한다든지 土茯苓이 梅毒을 치료한다든지 延胡索에 진통효과가 있고 常山이 瘧疾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든지, 使君子, 雷丸, 檳榔 등이 구충작용이 있다는 점을 밝혀 임상적인 가치도 높였다.

『本草綱目』은 1590년에 간행된 이후 오래지 않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하여 『본초강목』은 '동양 의학의 거대한 경전'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었다. 이 책은 본초학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세계의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에도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이 시기 본초학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 의가들의 본초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활발해 진점에 있다. 몇몇 소형의 저작물들은 본초학을 연구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저작물이다.

『本草集要』(1492년) 8권은 王綸이 지은 것으로, 이 책은 이전의 본초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요점을 추려 정리한 것으로 본초를 草, 木, 菜, 果, 穀, 石, 獸, 禽, 蟲魚 및 人 등 모두 1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책에는 모두 545종의 본초가 정리되어 있다. 매 약물마다 七情, 性味, 升降, 毒性有無, 歸經, 主治, 效能, 附方 등을 기재하고 있고, 또한 약성에 근거하여 氣, 寒, 血, 熱, 痰, 濕, 風, 燥, 瘡, 毒, 婦人, 小兒의 12개의 門으로 나누었는데, 각 문마다 다시 몇 개의 분류를 두었다.

『本草品匯精要』(1505년) 42권은 太醫院에 있었던 劉文泰 등이 편찬한 것으로 명대정부에서 간행한 본초저술이다. 이 책에는 1815종의 본초가 실려 있고 각 약물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물과 거의 유사한 채색그림이 실려 있어서 본초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本草蒙筌』(1565년) 12권은 陳嘉謨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은 본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742종의 본초를 싣고 있으며 각 본초마다 氣味와 升降, 毒性有無, 產地, 採集方法, 歸經, 經驗方 등이 실려 있다. 또한 그림과 각 약물의 특징과 용도를 기재하여 감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본초의 수지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李中立의 『本草原始』(1612년간), 李中粹의 『本草通玄』(명말, 1667년증정), 『本草徵要』(1637년간), 繆希雍의 『神農本草經疏』(1625년간), 賀岳의 『本草摘要』 등 많은 본초관련 저술들이 明代에 간행되었다. 또한 食用本草學에 관해서도 寧原의 『食鑑本草』, 汪穎의 『食物本草』(1620년간) 등이 있다.

王綸의 『本草集要』는 『동의보감』·역대의방에 수록되어있으며,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節齋'란 이름으로 7조문 인용되었다. 이보다는 명나라 盧和의 『食物本草』가 조선에서 간행되어 널리 읽혔는데, 이 책은 明 薛己의 『本草約言』(1520년경) 권3- 4 식물본초에 실린 내용과 동일하다. 『동의보감』에서는 '食物'이라는 약칭으로 22조가 인용

되었다. 또 明의 吳祿이 지은 『食品集』(1537년) 2권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는데, 이것 역시 앞의 책과 내용은 엇비슷하다.

하지만 『本草綱目』 이하 명말 이후에 나온 본초저작들은 대개 청조와의 불화, 백안시로 인하여 곧바로 조선의학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음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惠崗 崔漢綺(1803~1877)가 지은 『身氣淺驗』(1866) 권3의 藥物論을 보면 이 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붙여져 있다.

藥物論

藥物之常用成俗。不論彼此。…… 至明李時珍。著本草綱目。所載幾二千種。誠藥物之大備。既無見乎氣化脈絡。多傳會於俗習傳聞。其中有大用者。如人蔘大黃之類。是。有無用者。如龍虎骨之類是也。諸家註解。

다만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인 周命新의 『醫門寶鑑』(1724) 引用書目에 ‘神農本草綱目’이란 이명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李景華의 『廣濟秘笈』(1790) 인용서목²³⁾에 올랐다. 두 가지 모두 관찬의방서가 아니고 개인 의가의 저작임을 고려할 때 민간의료까지 폭 넓게 응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徐有渠의 『林園經濟志』에는 仁濟志와 保養志 등 의약관련 내용이 풍부한데, 이 중에는 『본초강목』을 비롯하여 明清 시기에 나온 수 많은 본초서가 등장해 있어 조선 사대부 지식층 사이에는 새로운 박물학적 본초지식이 흥미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본초강목』 보다는 龔廷賢의 『萬病回春』에 실린 본초(약성가)와 張景岳의 『本草正』, 李梴의 『醫學入門』에 실려 있는 本草가 훨씬 더 애용되었다. 특히 龔廷賢이 藥性歌를 지어 記誦에 편리하도록 한 것과 李梴이 합리적인 분류와 기억하기 쉬운 歌訣로 본초를 설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것들은 이후 조선의 약성가 본초의 원천이 되었으며, 康命吉의 『濟衆新編』(1799)을 始發로 黃度淵의 『醫宗損益』(1868) 약성가를 거쳐 『方藥合編』(1884)의 약성가에 이르기 까지 조선 본초학의 특성을 이루었다.

8. 『本草綱目』 이후 本草學의 분화

明代에 『本草綱目』이라는 저작이 나오게 됨에 따라 본초학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清代에는 『본초강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를 보완하는 本草書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다. 『本草綱目拾遺』가 그러한 서적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本草綱目拾遺』는 趙學敏이 30여 년간의 연구 끝에 1765년에 만든 것이다. 10권으로

²³⁾ 本草綱目, 李時珍撰, 號瀕湖.

되어 있는 이 책은 『본초강목』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물을 수록하고, 이미 실린 약물도 필요에 따라 보충을 하였다. 水, 土, 金, 火, 石, 木, 草, 籐, 花, 果, 諸穀, 諸蔬, 器用, 禽, 獸, 鱗, 介, 虫 등의 類로 나누고, 원래 있었던 人部를 없애고, 金石部를 金과 石, 두 부류로 나누고, 籐, 花 두 부분을 증가시켜 모두 18부가 되게 하였다. 수록된 약물은 모두 921종인데, 그 중에 새로운 약재가 716종으로 『본초강목』에 실리지 않은 것들이고, 161종은 『본초강목』에 이미 수록된 약물을 보충한 내용이다. 趙學敏은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여기에 민간의 用藥經驗을 수집하여 “拾遺”라는 명칭을 붙였다.

『植物名實圖考』는 『本草綱目拾遺』의 뒤를 이어 吳其浚이 편저하여 만든 것으로 1848년에 간행되었다. 전부 38권으로 모두 1714종의 식물이 실려 있는데, 穀類, 蔬類, 山草, 隰草, 石草, 水草, 蔓草, 芳草, 毒草, 群芳, 果類, 木類 등의 12류로 나누어 있다. 각종 식물의 形色, 性味, 用途, 產地 등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며 그림도 실려 있다. 同物異名 혹은 異物同名의 약품에 대해서도 모두 고증을 하고, 역대 본초서 중의 오류들을 바로 잡았다.

清대의 본초서적은 趙學敏의 『本草綱目拾遺』(1770년경), 吳其浚(1789~1847)의 『植物名實圖考』 이외에도, 유관한 본초학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임상과 없어진 것을 모아 고증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1694년에 汪昂이 『本草備要』 8권을 지었다. 모두 470여종의 약물을 실었는데, 매 약물의 성미 및 용도 등에 대하여 모두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695년에 張璐는 『本經逢源』 4권을 지었다. 모두 700여종의 약물을 실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후세에 상용되는 약물들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들에 대한 논술은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1757년에 吳儀洛이 『本草從新』 18권을 지었다. 이 책은 『본초강목』의 분류법을 참조하여 모두 720종의 약물을 수록하였는데, 비교적 간명하고 실용적이다. 1769년에 黃宮繡가 『本草求真』 10권을 지었다. 모두 436종의 약물을 실고 각각의 약물의 氣味, 形質을 醫方의 응용과 결합하여 깊이 서술을 하고 있다.

기타 본초서적으로는 楊時泰의 『本草述鉤玄』(1842년간), 陳修園의 『本草經讀』(1803년간)²⁴⁾, 張志聰의 『本草崇原』(1767년간), 周巖의 『本草思辨錄』(1904년간), 唐宗海의 『本草問答』(1893년간) 등의 책이 있다.

구한말 黃度淵의 『醫宗損益』에는 『본초강목』을 비롯하여 繆希雍의 『本草經疏』, 汪忍庵의 『本草備要』 등 명말청초의 본초서가 인용되어 전통본초 연구서로서 마지막 빛을 발하였다. 중국 청대에 나온 본초저작들은 고증학적 기풍 아래 매우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었지만 조선의학에 적극 수용되지 못하다가 조선 말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의가들에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밀어닥친 醫科의 폐지, 서양의학의 동점,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서 의학발전의 구심을 이루지 못한 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본제국의 점령 아래서는 생존을 위해 동서약학이 억지로 결합되는 강요된 상황

24) 원서명은 『神農本草經讀』.

과 왜곡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9. 마치는 글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본초이론은 이렇듯 수 천 년 동안의 도야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각 시기에 나온 본초서적들은 그 시기까지 나온 약물이론 뿐 아니라 의학이론의 발전상을 담아내고 있기에 일반 醫書나 방서 못지않게 중시되어 온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신농본초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통의학에서 중시해온 역대 주요 본초서의 간행과정과 의의를 시대별 특징에 따라 개괄해 보고 또 이 책들의 본초약물 학술상의 가치와 의의를 평가해 보았다. 나아가 이 책들이 조선에 도입되어 간행한 사실을 조사하여 조선 의학에 또는 우리의학의 고대 본초약물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상의 고찰 내용을 요약하자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독자적인 약물학 지식을 갖고 있던 우리 의학체계에 『신농본초경』을 비롯한 정리된 본초체계가 도입되고 한층 체계적인 약물학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려 이전에는 약물의 효용과 용법면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어 여말선초 향약의 개발과 진흥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鄕藥救急方』 方中鄕藥目이나 향약류 의서들의 존재가 이를 입증해 준다.

특히 당송 시대 이후 중국에서의 관찬 본초서가 간행됨에 따라 조선에서는 『향약집성방』에 대규모로 본초가 정리되어 수록되고 이후 많은 본초서를 간행했으며, 금원의학이 도입된 이후, 새로운 약리학설과 본초해석이 받아들여져 약물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적 지식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의림촬요』와 『동의보감』 탕액편과 單方에서의 본초방 정리 그리고 『산림경제』나 『고사촬요』의 의약편에 수록된 약물요법은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초강목』 이후 청대 박물학적 입장에서 정리된 방대한 본초지식들은 청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상황과 조선 사대부의 경학중심적 사상체계 하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일부 의가들 사이에서만 탐독하고 인용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조선에서의 본초학은 『본초강목』과 같은 실증적 기풍보다는 『萬病回春』 약성가와 『醫學入門』에 실려 있는 本草 가결과 같은 암송하기 쉬운 간편 지식이 훨씬 더 애용되었다. 康命吉의 『濟衆新編』(1799)을 始發로 黃度淵의 『醫宗損益』(1868) 약성가를 거쳐 『方藥合編』(1884)의 약성가에 이르기 까지 약성이 본초는 조선 본초학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통방식의 본초학은 자력적인 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외세에 의한 지배와 전통의학의 말살정책에 의해 강요된 상황에서 도출된 新醫療法 또는 서양약물학 지식과 억지로 접합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학화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본초학 전통의 계승과 본초약물적 사유구조의 복원 그리고 새로운 현대 한의약물학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參考文獻]

-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79
-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1956, 1973 增修版.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안상우, 최환수. 『御醫撮要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 薛愚. 『中國藥學史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傅維康. 『中藥學史』. 成都: 巴蜀書社, 1993.
- 尙志鈞, 林乾良, 鄭金生. 『歷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 潘富俊. 『詩經植物圖鑑』,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 (唐)蘇敬等撰; 尙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輯復本第二版, 2004.
- (宋)唐慎微原著; (宋)艾晟刊訂; 尙志鈞 點校. 『大觀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2.
- 張瑞賢 主編. 『本草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